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 화엄경 ②

이제 제3 발광지(發光地)의 순서이다. 뛰어난 선정과 큰 교법의 다리니(總持)를 성취해서 가없는 지혜의 빛을 내기 때문에 발광지라 한다. 먼저 찬탄하면서 법을 칭하는 계승을 보자. "천상과 인간의 공양 받으시는 이, 제 삼지(三地)의 법문을 설하소서. 교법과 상응하는 지혜의 업을 그 경계와 똑같이 보여지이다. / 큰 선인의 갖추신 보사와 계율, 인욕과 정이이며 선정과 지혜, 방편과 자비하신 원과 도력과 부처님의 청정한 행 말씀하소서."

"이 보살이 법을 듣고는 마음을 거두어서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말한 대로 행을 두고야 불법을 얻을 것이니, 말만 하여서는 청정할 수 없으리라(非但口言而可清淨) 하느니라."

즐거워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 하오며 / 자재천궁 임금도 기뻐 뛰면서 마니주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말"

이러한 찬탄을 계기로 설법이 이어진다. 사념처(四念處)와 사정근(四正勤), 사신족(四神足), 오근(五根), 오력(五力)과 칠각분(七覺分), 팔정도(八正道) 등의 37가지 보리분법의 수행을 착실히 닦아 나간다.

"염해지에 처음 올라 세력이 늘어 여러 가문 태어나 퇴전치 않고 삼보(三寶)를 믿는 마음 안 무너져 무상하고 나지 않는 법을 보오며(始登地增勢力 生如來家永不退於佛法信不壞 觀法無常無有起 / 사념처(四念處) 활이 되고 근은 화살 되고 정근(正勤)은 말이 되고 신족은 수레 오(五)력의 갑옷으로 대적 파하며 용맹하게 안 물러가 오지(五地)에 들며(處處爲弓根利箭 正勤爲



그림·문병성

## 공에서 색을 봐야 참 불교

### 불교와 과학 <40>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과 기술이 우위를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구실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토론을 많이 한다.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첨단 검측기를 통해 원리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반면, 불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룬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이는, 하나는 인간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깨달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데 있다. 욕심을 없앤다는 것은 이미 욕심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인간에게 집착과 욕심이 아예 없다면 그런 욕심을 없애야겠다는 발원조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기라는 철학적 논쟁이 따르기도 했다.

생물학적 인간학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인류의 가치관과는 무관한 생물학적 조건으로 보았다. 생물학적 인간학에서는 한 생명체의 욕심이란 그 생명체가 생명성을 유지하고 존속하려는 물리적 대사작용의 한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욕심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런 과학적 사유가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들의 욕심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상호 계약을 통해서 분배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런 생각은 서구사회에서 법과 계약 관계가 발전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과 사회적 계약 관계가 아무리 우수해도 인간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은 않는다는 것이 기술문명사회가 보여준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종교가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 중에서 특히 서구사회를 지배해 온 기독교는 과학적 인간관에 어울리는 적극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물질관은 물질을 인간의 후생이용에 맞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불교는 물질적 욕심을 버리라고 했고, 그 물질을 어떻게 지배하고 이용할 것인가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꼭 떨어져 있었다. 옛 사회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심이 가져다준 폐해는 상당하다. 특히 불교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명제는 단순한 윤리적 차원에서 벗어나 철학적 의미를 담지하게 되었다. 색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색(色)도 알고 보

#### 색을 넘어서

#### 과학 인간후생 위해 물질지배 강조

#### 불교 색도 결국 공... "집착 말라"

면 아무 것도 아니어서(空) 굳이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색의 허구를 증생들에게 여실히 일러 주어야 했다. 색이 공이라는 것은 증생의 차원에서 보면 색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증생의 차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의식의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보는 불교의 첫인상은 대부분 색의 허무함 나아가 불교 물질관의 빔(빔)이 있음에 대한 강한 각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불교 사회 내부에서도 그러했다. 지난 호에 쓴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의 허무함을 신랄하게 꼬집은 중국 철학자 옹심력의 불교 비판이나 조선 건국의 이데올로기인 권근이나 정도전의 불교 비판은 그들의 비판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지녔거나 구국론적 변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현실을 외면하고 물질을 무시하는 불교 일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오해는 사실 현대도 일부 지식인이나 일반인들에게 광범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과학과 기술 사회가 가져다 준 윤리적 병폐와 문명적 소외의 구멍을 막아주는 일시적인 치유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다가오는 변화의 문명기를 앞장 서 갈고 갈, 적극적인 삶의 희망이 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는 색이 공이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도 뒤집어 보면 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색이 공이라는 생각은 사실 헤라클리투스나 피타고라스 서구 철학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다. 그러나 공이 색이라는 말은, 불교가 갖고 있는 특이하면서도 어려운 철학적 명제이기도 하다. 어렵다고 했지만 공의 색 필은 실천불교의 아주 쉬운 단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 수습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복 기도보다는 집에 가서 자식과 진정한 삶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실천의 한 현상이다. 부모가 먼저 요청이나 허튼 것을 바라지 않고 인과적이고 진지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물질의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색 필을 실천하는 빠른 길이기도 하다.

불교도 어느 정도 과학적이어야 한다. 물론 불교 전체가 현대 과학기술을 좇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현실불교에 집착되어 있는 기복주의나 그에 상응하는 주술주의, 권위주의, 의도된 허무주의 등을 거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과학적 사유' 라는 사다리를 써야 한다. 불교는 단순히 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충덕/상지대 교수 jchok@chak.sangji.ac.kr

## 사찰 20여곳 들어서 美 제2의 불교성지

### 지구촌 불교 / 뉴욕 컷스킬스 佛村化

미국 뉴욕의 컷스킬스(Catskills) 지역에 불교 사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주목된다.

뉴욕 타임스는 4일 '컷스킬스 숲 속에서 활짝 핀 불교(Buddhism Blooms Amid the Forests of the Catskills)'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울창한 숲 속에 일본·티베트·한국·대만 불교 등 다양한 전통을 따르는 불교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다"며 "특히 보르시치(Borscht) 계곡에 이들 사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컷스킬스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뉴욕에서 두 시간 남짓 거리로, 휴일이나 주말에 뉴욕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지역이다. 뉴욕과는 전혀 다른, 대자연의 풍광이 펼쳐진 까닭이다.

그런데 10여 년 전 일본 불교계 젠 마운틴(Zen Mountain) 선원이 들어서던 이후 티베트 불교계 카르마 트리야나 다르마차크라(Karma Triyana Dharmachakra), 한국 불교계 조계사(Gyogesa), 대만 불교계 보사츄(Bosatsu) 등 불교 사원이 20여 개나 개원했다.

이에 대해 헌팅턴(C.W.Huntington) 교수(하트워드·종교학)는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50년 후의 이 지역은 불교 성지로 탈바꿈되어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샌프란시스코 연안지역에 이은 미국의 두 번째 불교 성지"라고 말했다.

불교 격월간지 <삼발라 선(Shambhala Sum)>을 발간하고 있는 맥클로드(M.McCleod) 씨는 "사원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 사원을 찾는 사람의 수나 그들의 교육 수준, 사회적 영향력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불교 사원이 집중된 곳을 뉴욕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불교에 귀의하는 뉴욕 시민의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맥클로드 씨는 이들 뉴욕 시민들이 교육 수준도 높은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는 데 주목했다.

#### 뉴욕시민 자주 찾아 명상수행

#### 금융인·법률가 등 저명인 많아

뉴욕에서 금융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프리처터(J.Frechter) 씨는 6개월 전부터 자신의 생업을 포기한 채 다이 보사츄 젠도 사원의 법공과문을 겸한 수행자로 살고 있다. 선물거래 전문가인 키버(W.K.Keever) 씨는 카르마 트리야나 다르마차크라 사원에서 명상을 시작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두통을 고쳤다. 이로 인해 그는 다르마차크라 사원의 독실한 신도가 됐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프리처터 씨나 키버 씨 같은 경우가 컷스킬스 지역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컷스킬스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도 불교 사원의 증가를 환영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인 협회장 루미아(Lumia) 씨의 말을 인용, "컷스킬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사원의 증가와 함께 오르고 있다"며 "이는 환경친화적인 불교 사원이 이 지역 풍광에 미(美)를 더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원으로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미국인들이 뉴욕 금융·법률가의 저명인사들이 많아, 땅의 가치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oo@buddhapia.com

## 행 닦아야 청정불법 얻어

### 나와 남 대승엔 수행단계 없어

이렇게 맹세하고는 세간의 모든 현상, 즉 범부의 행실이나 소송의 편벽함에서 벗어나 사선(四禪)과 사공(四空)의 선정을 닦게 된다. 계승을 보자.

"법문 듣고 이치대로 생각해 보아 사(四)선정과 무색계의 삼매 얻으며 자 비 회 사, 오(五)신통이 생겨난 대로, 그 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리라. / 이 보살은 도리천왕 쉽게 되어서 한량없는 하늘, 대중 다 교화하고 탐욕한 마음 버리고 선도(善道)에 있어 한결같이 부처 공덕 구하게 하며 / 불자들이 여기서 정진 잘하여 백천 삼매 구족하고 백천 부처님 상호(相好)로 장엄한 몸 모두 보지만, 서원하는 힘은 이보다 뛰어나네."

제4는 염해지(焰慧地)이다. '불꽃 같은 지혜의 경지'라는 뜻이다. <유식론(唯識論)>의 설명을 보자. "가장 뛰어난 보리분법에 안주하여, 번뇌의 뿌리를 태워 버리는 지혜의 불꽃이 더욱 왕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묘한 법 연설할 적에 대지(大地)와 바닷물이 다 진동하고 수많은 천녀들이 모두

馬神足車 五力堅破鐵敵敵 勇健不退五地 / 부끄럼은 웃이요 각분(覺分)은 꽃다발, 선정은 바라는 향, 계(戒)도 향되고 지혜와 방편으로 정엄(正嚴) 다라니 숲과 삼매 동산 들어가도다( 懺悔衣覺分淨戒髮禪塗香 智慧方便妙莊嚴 入總持林三昧苑)"

이어서 제5 난승지(難勝地)이다. "지극히 극복하기 어려운 지(地)이다. 참다운 무분별의 지혜와 오명(五明)의 세속적인 지혜의 작용이 서로 위배되는 것을 화합하여 상응하게 하는 것이 매우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십지(十地)의 실천수행(行)은 위의 보리분법처럼 소송의 행상과 모두 같다. 하지만 나와 남을 한 몸으로 생각하는 대승의 넓은 마음으로 닦는 수행이므로 행상이나 법에 구애받지 않는 특징도 있다. 화엄에는 화엄문(行布門)과 원융문(圓融門)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날, 단계적인 화엄문보다 시원스런 원융문으로 삼매에 들어 더위도 잊어버리는 수행으로 화엄의 경지를 얻어보는 어렵까.

■불교사상연구원

### 인터뷰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건강 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출신식 (2개월 50만원), 출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구중구포 (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 (2개월 50만원), 유황원장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6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유고(경유고) 감이 생김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감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제조 의로 호성양방·한방병원

총판 법인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호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출신식(松仙食)」, 「출효소정액(松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들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 (전화 053-655-3027) 최형정님 올림